

## **‘반값 여행’으로 지역에 활력, 4월부터 여행경비 반값 돌려받으세요**

-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상반기 인구감소지역 16개 지자체 선정, 하반기 4개 지자체 추가 선정 예정
- 사전 준비 거쳐 4월부터 시행, 개인당 최대 10만 원 환급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 강원(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전남(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여행 지역에 사전 신청, 여행경비 증빙하면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신청자는 18세 이상)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본격 시행 전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부터는 대상 지역 등 확대 추진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후,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명호 (044-203-2861)
		담당자	서기관	이광윤 (044-203-2854)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예산과	책임자	과장	정성원 (044-214-2550)
		담당자	사무관	심민준 (044-214-2552)
담당 부서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	책임자	팀장	이경진 (033-738-3671)
		담당자	차장	박선미 (033-738-3676)

